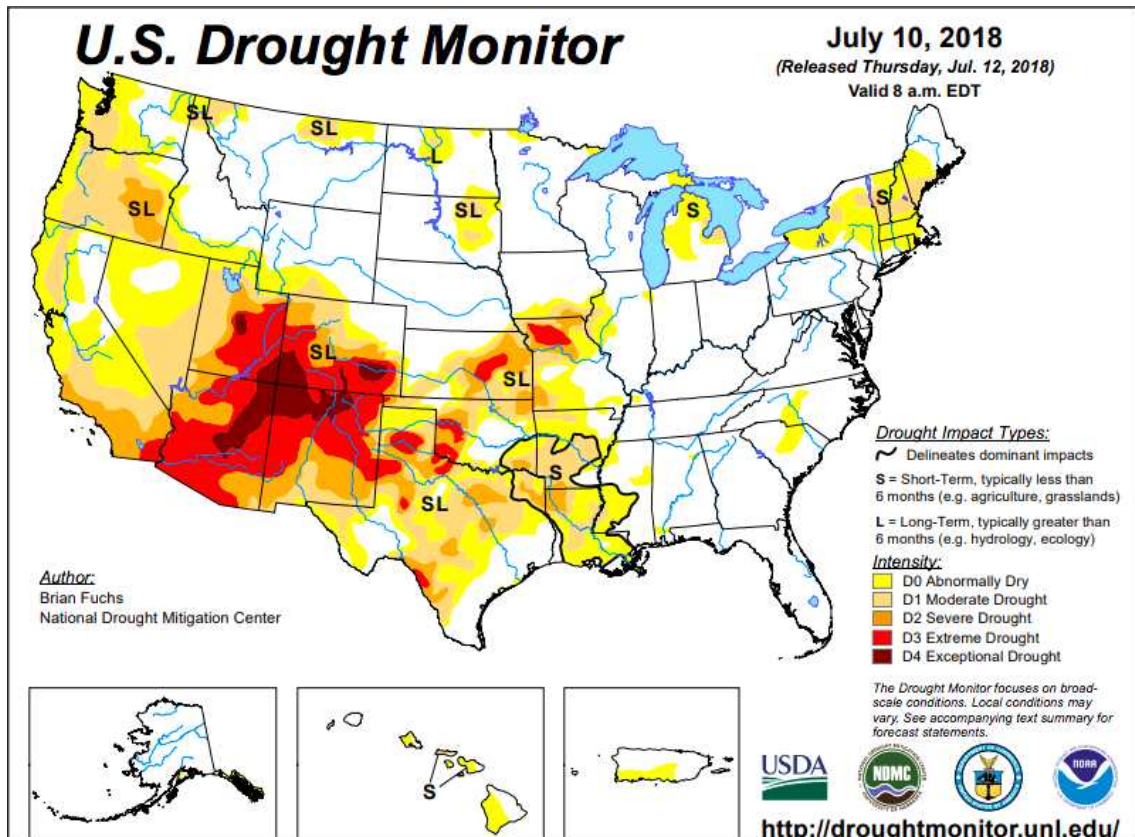


7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9)

□ 미국 기후 현황(7/8~7/14)

미시간, 미주리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리기는 했지만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 현재 북서부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10°F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 이상 오르기도 했다. 북동부 및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서도 비가 그치고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 □ 농업 현황 요약(7/9~7/15)

중서부 북부, 남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뉴 잉글랜드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특히 서부 일대, 로키산맥 주변 지역, 중서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4°F 이상 높았다. 반면,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F 정도 낮았다.

## □ 세계 기후 현황(7/8~7/14)

■ 유럽: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북서부 등에서는 10~8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가뭄이 극심했던 지역에 내렸지만 수확량 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프랑스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현재 잉글랜드의 경우 지난 60일 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남동부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7월 15일과 16일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도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2~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동부 유럽 일대에서도 10~85mm 내외의 비가 내려 옥수수, 면화 등의 수확량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주 초반 낮 최고기온이 35~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Stavropol 지역에서는 지난 6월 20일 이후부터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는 날이 17일을 기록했고, Krasnodar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는 날 수가 10일을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남부의 Rostov 일대에서는 10~22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 비는 주 후반에는 러시아 북부의 Caucasus 지역으로 옮겨갔다. 7월 16일 위성사진 자료상으로는 러시아 남부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비는 옥수수 등의 수확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에서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서부와 몰도바, 벨라루스 등에서도 4~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태풍 Maria가 대만 북부와 중국 동부를 지나면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7월 9일 대만에 상륙할 당시 최고 풍속은 150 knots를 기록했으며 곳곳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한반도 북부 일대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일본 북부와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호주: New South Wales 북부와 Queensland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최근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추가로 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확량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New South Wales 남부와 남호주 등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다. 한편, Victoria 등에서는 3~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서호주 일대에서도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고, 동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동부와 남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Buenos Aires, La Pampa, Cordoba, Entre Rio 등에서는 하루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지만, 밤 동안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 북부의 Chaco, Santiago del Estero, Cordoba 북부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30°C 내외까지 오르고 있으나, 곳에 따라서는 밤 동안에 기온이 영하 4°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2일 기준 밀 파종률은 88%인 것으로 나타났고, Buenos Aires의 경우 밀 파종률이 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2일 기준 밀의 파종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ana의 경우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까지 오르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9일 기준 밀 파종률은 99%였으며, 이 가운데 4%는 개화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에서는 7월 13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이 50%를 기록했으며, 면화의 수확률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